

美, 한국 세탁기 예비 반덤핑 관세

대우일렉 82%·LG 12%·삼성 10% 등 10억달러 맡겨야 수출...내년 1월 판결

미국 상무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제품에 대해 최고 82%의 예비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한국산 세탁기에 매긴 관세(덤핑 마진)는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2.15%, 삼성전자 9.62%이고, 다른 한국 회사 제품은 11.36%이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삼성전자 제품은 72.41%가 매겨졌다.

이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 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덤핑 관

매하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예비관정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관세에 반덤핑 예비관정 9.62%를 추가해 1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A)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해소조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무역법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관세율은 대우일렉이 70.58%, 삼성전자 1.20%, LG전자 0.22%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가 연간 4억5000달러(약 5000억원)에 달하는 등 이들 3개사의 수출 규모는 연 5억 6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풀의 지난해 매출 187억 달러 가운데 세탁기의 비중은 30% 가량이 다.

상무부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월풀 제품에도 72.41%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월풀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사 제품을 미국 내 오하이오주 클라리드지역에서 생산한 세탁기와 비교해 72.41%나 싸게 팔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업체들은 상무부의 계산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최종 관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 세관 당국에 이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맡겨놔야 하며 10억 달러에 상당할 것

으로 추산된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을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 수출 규모 중 미국 수출은 1%도 되지 않아 파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미국산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며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현명한 관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 12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상무부가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리더라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를 인정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은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남뉴스

지역 기업들 힘겨운 여름나기

7월 자금사정·8월 전망 BSI 86...자금난 지속

광주·전남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71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7월 광주·전남지역 기업자금사정 조사’ 결과 기업자금사정BSI(기업경기실사지수)

는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86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90, 비제조업은 82로 각각 전달보다 4포인트 내렸다.

7월 광주·전남 자금수요BSI는 108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 자금조달BSI는 94로 7포인트 하락을 각각 기

록했다.

8월 기업자금사정 전망BSI는 86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해 앞으로 자금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어렵다던 카드사, 부수입 2조원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경영이 어렵다던 카드사들이 지난해 보험 판매 등으로 2조원이 넘는 부대입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이유로 금융 당국에 커피전문점 등 서민 업종에까지 진출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보험 대리판매

등 부대입의 취급액은 2조4553억원으로 전년 1조8480억원보다 6073억원 늘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보험 대리 판매로 1조3767억원, 여행 알선으로 4705억원, 통신판매로 608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카드업계의 부대입부 취급액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전인 2001년의 5150억원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급증한 셈이다.

/연남뉴스



한국브랜드, 런던서 특별전
런던 해로즈백화점에서 열린 '런던 해로즈 백화점 한국브랜드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 마이스터 사가 전시한 무제인 자전거를 둘러보았다.

아시아자동차 국산화 착수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5>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 운동 ①

이문환 사장, 북·서광주 공단 적지 합의 이끌어

▲질신장사에 질신 판 폰이 역셀 자동차공업을 현대산업의 꽃이라고 한다. 생산·유통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뿐 아니라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점에서 경제 비중이 막대하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은 제조업 생산의 11.95%, 고용의 9.63%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선도산업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미국의 경제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 세계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던 일본의 도요타가 71년 만에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2009년 5월과 6월 미국 자동차공업의 빅3인 크라이슬러와 GM이 연달아 파산하는 와중에서도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흔들림이 없었다. 2011년 말 현재 전년대비 9.0%가 증가한 465만8000대를 생산, 2005년 이후 7년 연속 세계 5위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 자동차공업의 발전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1974년 현대자동차의 첫 고유 모델인 '포니'가 세계시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계의 자동차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그로부터 불과 12년 만인 1986년 자동차산업의 보고장인

미국에 현대의 '포니 역셀'이 상륙했을 때는 '질신 장사에서 질신 팔아먹는 격'이어서 세계를 아연케 했다.

▲코로나와 코티나 시대
선진 자동차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공업의 시련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그 원류에 아시아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자동차업체들이 생산과 소멸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원 뿌리는 오로지 기아와 아시아이고, 그 명맥이 고스란히 현대자동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은 아직 결을 마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1955년 9월 자동차정비 기술자인 최무성 국제차량공업사 대표가 미 군용 지프의 엔진과 변속기·차축 등을 조립, 지프형 승용차 '시발'을 제작한 것이 우리 국산 승용차 1호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1962년 1월29일 일본 닛산 부품의 조립체인 새나라자동차공업사의 '새나라'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단 승용차로 연산 6000대 규모의 양산체제를 갖췄고 같은 해 기아산업의 3륜 트럭

이 출시됐다. 1966년에는 새나라를 인수한 신진자동차의 코로나와 퍼브리카가 나왔고, 1968년 11월 현대자동차의 코티나와 1969년 포드M20이 출시됐다.

▲아시아자동차, 한국 차를 선진대열에
아시아자동차가 첫 모델인 피아트를 선보인 것은 현대의 포드M20보다 1년 뒤인 1970년 3월이다. 그러나 생산은 늦었지만 아시아자동차의 태동은 기아산업의 3륜 트럭 생산보다 앞선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 이 고장 공업화의 선두주자였던 이문환 씨가 자동차 국산화 제작 계획을 입안해 가장 아시아자동차회사 창립에 착수했다. 이 씨는 우리 고장 공업화의 효시가 되었던 나주호남비료의 건설을 최초로 시도했던 바로 그 당사자이다.

이문환 사장이 아시아자동차 국산화 계획에 착수한 것은 호남비료가 정부로 귀속된 지 두 달 뒤의 일이다. 호남비료가 술한 시행착오 끝에 투자자에게 실망을 안겨줬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보인 탁월한 추진력과 국제 감각은 아시아자동차 건설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는 계획에 착수한 지 두 달도 못돼 광주시로부터 북광주와 서광주지역을 공단 적지로 선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문환 (연남인)

■ 새얼굴

“중소기업 지원·고용창출 동참”

박철용 신보 호남영업본부장



“지역 중소기업과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철용(52) 신보 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실물경제 회복과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용 본부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고·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신보보증기금에 입사해 비서실장·보증심사부장·인사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 여름 8월 평균기온 22.3°C
겨울에는 눈축제

(삿포로) - 대한항공 전세기 3회 취항

日本 北海道 ↔ 무안공항

새벽출발 저녁도착으로 알찬 스케줄 : 무안출발 : 05:00 / 삿포로 출발 : 22:30

8월 09일 3박4일 1,390,000~ (인천출국-무안귀국)

13일 2박3일 1,290,000~ (무안공항 왕복)

16일 3박4일 1,650,000~ (무안공항 왕복)

문의 및 접수 : 호남권 여행사

昭和新山(쇼와신잔)은昭和(일본의 연호)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산? 1944년 6월, 한마디로 어느날 자고 일어나 밖을 보니 보리밭과 소나무 숲이던 곳이 산(402m)이 되어 지금도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는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